## Q2 피해지 복원 시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자연복원은 수관층이 살아있거나 움싹으로 숲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림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자연복원은 초기 투입비용이 적고 토양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필요로 하는 목재를 생산하거나, 송이와 같은 고부가치 임산물의 생산이 어렵다는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림복원은 주로 수목을 식재하여 복원하는 방법으로 경제수조림, 경관조림, 송이복원조림, 내화수림 조성 등의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조림복원의 경우 같은 나이를 가진 나무들로 숲이 조성되기 때문에 목재생산과 같은 산림경영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입비용이 비교적 많고, 초기에 지표면의 훼손이 발생합니다.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입지특성, 산주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3 산불 피해지에 심을 나무 종류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A** 산불피해지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크게 3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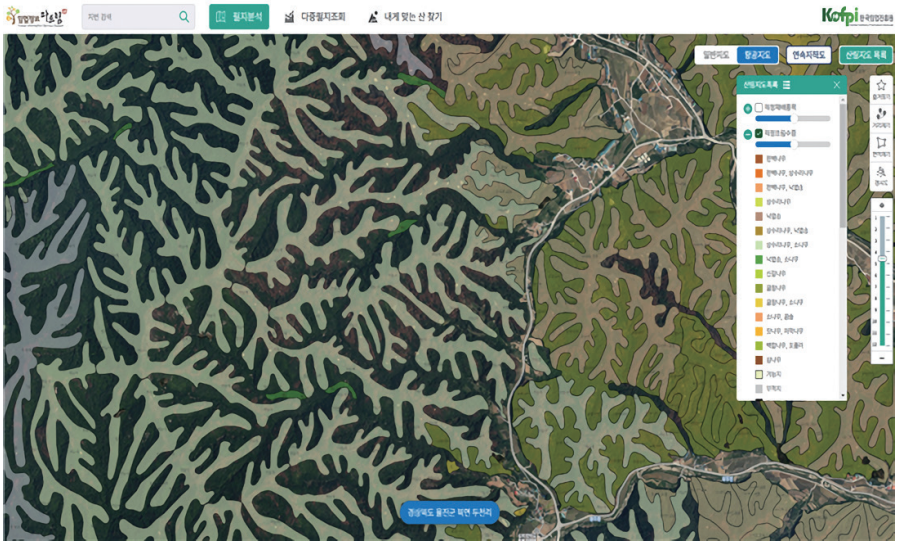
첫 번째, 산주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가? 소나무숲은 산불피해 위험이 크지만 그곳에서 자라는 송이는 주요 소득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다시 심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에도 밤나무, 고로쇠나무 등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수종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이나 산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심는 나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인가? 나무마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지가 다릅니다. 나무 특성에 따라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적지적수라고 합니다. 적지적수를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활착과 생장이 우수하여 산림의 기능을 잘 발

휘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심기 원하는 수종 중에서도 적지적수를 반드시 고려하여 심어야 합니다. 적지적수 정보는 산림정보 다드림(gis.kofpi.or.kr)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불이 다시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수종배치를 하였는가?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을 주변에는 활엽수 위주로 식재하여 지표화로 유도하고, 민가 주변에 남은 소나무림은 활엽수림으로 유도하여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효과




다드림 산림지도 화면

※ 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정보 다드림 홈페이지